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정권교체만이 구원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망조’가 된 것일까? 물론 부인하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전망을 주목하고 싶다. 하지만 “영화와 노래 빼고는 다 영망이야!”라는 농담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정부 공공 기능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무너진다. “국민 99%는 개·돼지”라는 교육부 고위간부의 발언은 그 정점에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행동의 뻔뻔함에 이르러서는 ‘소시오패스’가 현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기는 ‘천왕폐하 만세 삼창’을 부른 공공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인물 역시 아직도 그 자리에 견재하다.

회의록조차 없는 ‘서별관회의’라는 당정 협의체 자리에서 분식회계가 분명한 대우해양조선에 4조가 넘는 지원금을 결정된 뒤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검은 돈으로 쓰일 것을 몰랐다면 무능하고, 모르는 척 했다면 사악하

다. 무능과 사악이 경제 부문에 판치는데 어떻게 건강한 경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드를 둘러싼 논쟁을 두루뭉술하게 피해 가려는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미국에 무슨 호구를 잡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무슨 뒷사정이 있기에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지 선정조차 쉬쉬하다가 급작스럽게 발표하는가? 이른바 ‘위안부 협약’이라는 수상한 협상 이후 일본 정부에 납작 엎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기본이 망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쉬쉬’하기 때문이다. ‘쉬쉬’하는 현상은 지금 당장 썩은 것 이상의 구조적 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엉망진장이다.

적어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세 가지가 살아 있었다. 첫째 언론의 기능. 둘째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 그리고 셋째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은 지켜지리라는 신뢰와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

었다. 사회의 기본, 인권의 기본, 안보의 기본, 경제의 기본은 지켜지리라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게 나라야?” 하는 의문이 어디서나 일어난다. 국민을 불안한 삶에 몰아넣고 이른바 정권 세력과 그 주변의 부나비들은 자기들의 이너서클을 어떻게 지킬지에만 급급한다. 그러나 모든 걸 ‘쉬쉬’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메르스, 4대강, 자원외교 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협약, 그리고 이제 사드에 이르기까지, ‘쉬쉬’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덮는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구원이다. 대한민국을 나라으로 떨어뜨리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언론의 기능이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든 권력을 봐주려는 주류 언론들도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그 정도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류 언론들이 끊임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정책에 대한 설명, 국민 보고,

전문가 토론 과정이 뻑뻑하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은 물론 역량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지금처럼 권력과 언론 주류들이 밀월관계에 있다가는 ‘쉬쉬’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어야 공공의 책임에 대한 기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처럼 줄서기가 황행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나 부화뇌동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한탕 해 먹기까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해도 해도 박근혜정부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권력의 주변을 남보고, 자리를 꿰차고, 본색을 드러내고, 사심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여성 코골이 신경 쓰이시죠?



김성훈 한의원장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가 여성이라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더욱 신경 쓰이게 마련일 것이다. 남성들은 탱크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코골이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귀여운 코골이마저 눈치거리와 놀림거리가 되기 일수다.

필자도 열렬한 팬인 한 여배우가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 중에 코를 골아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남자들은 당당한데 왜 여성만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일까?

지난 주말에 여성 두 명이 코골이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왔다. 한 여성은 최근 입사한 직장의 워크숍에서 자신도 느끼지 못했던 코골이로 인해 동료에게 민폐를 끼쳤으며,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병원을 방문했다. 또 나머지 여성은 “결혼 준비비로 피곤해서 인지 코골이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치료를 해달라”고 간절히 당부했다.

코골이는 병이며 몸이 소리치는 아우성이다. 여성의 코골이 환자 수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주

로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늘어난다. 이러한 수면호흡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폐경에 의한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특히 황체호르몬은 휴식시 환기량을 증가시켜 저산소성 환기반응을 높이고, 상기도 폐쇄를 줄이며, 혀뿌리의 근긴장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자극하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에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호르몬의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 더욱이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비만은 코골이와 수면호흡장애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체중의 증가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턱관절의 구조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 흔히 우리들이 무턱이라고 말하는 즉, 유난히 작거나 좁은 턱의 경우에 기도가 좁아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미용을 위해 양악수술이나 치아교정 후에 나타 나기도 한다.

그리고 만성적 비염과 축농증 등의 코

질환, 아데노이드와 편도의 비대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수면호흡장애는 한의학적으로는 태음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축체질적으로 어머니가 코골이가 있다면 본인도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코골이 정도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성 중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기도의 크기와 편도의 크기를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먼저 기도의 크기를 확인해보는 방법으로, 입을 크게 벌려 아~소리를 내면서 살펴보면 되는 데, 기도의 좁은 정도가 일 반인에 비해 절반 정도라면 반드시 코골이 나 심하면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편도의 크기를 관찰해보는 방법이다. 평소 편도가 뭉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잘 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입을 벌려도 편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만일 편도가 입을 벌렸을 때 확연히 보인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가 잠잘 때 입을 벌린 채 호흡하고, 숨소리가 거칠다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기 고



허기석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시민 여러분! Thank-U

으로 133척의 왜군 함대와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서 보듯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묘약이다.

광주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역에서 개최된 최대의 스포츠 행사는 ‘전국체전’이 유일했던 광주시가 이를조차도 생소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해 화제가 되었다. 유치의 기쁨도 잠시, 국제대회 경험이 전혀 없는 광주가 과연 할 수 있을 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우리 시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올림픽에 비금가는 스포츠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이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섰다.

하지만 2015년 7월 광주시는 스포츠 이벤트 역사상 유례없는 멋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른바 ‘대박 사건’이었다. 대학스포츠연맹(FISU) 루이 갈리앙 회장의 말처럼 ‘광주는 전 세계의 별이 되고 전설’이 된 것이다.

12만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였고, 대회

기간 중 광주 도심은 세계 젊은이의 흥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로 변하였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는 친절과 미소로 외국 손님들을 맞으며 남도의 정과 멋을 뽐낼 선사해주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진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

이는 지구촌의 차세대 리더들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갔으며, 광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

전 세계인이 극찬한 명품대회, 완벽대회의 진정한 공로자인 150만 광주시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행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광주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보여준 탐과 노력,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폐막한 지 1년이 되는 7월 14일 저녁 7시에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시민 감사행사를 개최한다.

‘Thank-U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월드컵경기장 인근 주민과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 관계자에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동의 순간을 자축하기 위한 비투비, 마마무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이 마련되었다.

2015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참여와 협력의 선진 시민의식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 광주시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많은 준비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에너지 회의 진정한 공로자인 150만 광주시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어 마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의 노력에 시민들의 ‘자신감’이 더해진다면 더 큰 ‘대박 사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힘든 여건’이 아니라, 두려움에 주저하는 ‘우리 자신’이다.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1년 전 150만 시민들이 전세계인에게 보여준 자신감과 자력의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모아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社 說

광주시 후반기 요직 인사 전문성 최우선으로

민선 6기 후반기 광주시 요직 인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시장과 공직인 산하기관의 중요 부서장에 누구를 앉힐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후임 인선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인 경제부시장이다. 내달 29일 2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우병기 경제부시장에 버금가는 인물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공모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여기에도 노성경 시장 정부특별보좌관이 맡았던 그린카진흥원 본부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추진의 핵심이고, 문혜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임명으로 비어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도 새로 정해야 한다. 또 윤강덕 김대중컨벤션센터 본부장의 파견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도 문화관광체육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 민선 6기 전반기에는 총책을

맡은 인사들이 잇따라 중도 탈락하는가 하면,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중용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윤강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인사로 점수가 깎였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광주시의 후반기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어렵사리 예비타당성 조사서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본궤도에 올리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에너지밸리 활성화, 시민 복지 증진도 꾀해야 한다. 능력과 실용성 인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중요 보직 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칫 ‘보은’에 얽매어 또다시 파견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도 문화관광체육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뻔히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니

대단위 주거 지역과 인접한 광주 하남 산단 내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와 광주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주민들이 유독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최근 환경부의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방산업이 2014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t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4년 기준 두 번째로 많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트리스(130t)의 2배 이상이며, 열지화학 여수공장이 배출한 50t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광주 지역 다른 9개 사업장에서 배출된 총량(48kg)의 5768배에 이른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은 지난 2009년 74t, 2010년 201t, 2011년 310t,

2012년 439t, 2013년 250t 등으로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위를 차지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세방산업은 TCE를 배터리용 격리판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TCE는 간염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흡입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화학산단도 아닌 일반산단에서 매일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하지만 더 거대한 것은 인근 노동자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광주시는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해당 업체를 산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산단 근로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無 等 鼓

어린 시절, 율강 ‘소년중앙’이 배달되는 날이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한 달음에 달려갔다. ‘까병이’와 ‘독고탁’은 사랑하는 캐릭터였고, 학교에선 ‘어깨동무’와 ‘새소년’을 가진 친구들과 책을 돌려봤다. 이후 세대들에겐 ‘보물섬’이 그 역할을 했을 터다.

변변한 오락거리가 없던 시절, 만화책과 함께 꼬마들의 최고 즐길 거리는 TV 만화영화였다. 요즘 아이들에게 ‘뽀통령’ 뽀로로와 타요가 있다면 우리 시대엔 ‘마징가Z’와 ‘미래 소년 코난’ 그리고 ‘요술공주 세리’가 있었다. 운동회 때

면 목청이 터져라 응원가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다.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지금도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마징가Z’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라. 세월이 흘러 주인공 ‘쇠돌이’가 사실은 ‘가부토 코우지’라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말이다. ‘마징가Z’는 1972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됐고, 우리나라에서는 MBC를 통해 1975년과 1978년 두 차례 시청자들을 찾았다.

1976년 등장한 ‘로봇 태권V’는 또 다른 열광의 대상이었다. 영화관에서

상영된 ‘로봇 태권V’는 국산 SF 애니메이션의 효시로 꼽힌다. 김 박사과 그가 만든 태권V, 아들 훈, 인조인간 매리, 강동로봇 등 캐릭터들은 인기 만점이었다. 당시 아이들 관심은 마징가Z와 로보트 태권V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점이었다. 이후에는 전쟁이 터지면 국회의사당 등이 열리고, 태권V가 출격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태권V는 기 56m에 몸무게는 1400t이 나 나가는데, 머리 모양은 평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투구에서 힌트를 얻었다 한다. 태권V 실력은 4단으

로 실제 국외에서 태권V에게 명에 4단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올해는 ‘로봇 태권V’가 만들어진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지난해 서울에 문을 연 브이 센터에도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재자 앙림동 ‘맹권마을’을 찾았다 반가운 이들을 만났다. 참 좋아했던 아기공룡 둘리와 희동이. 둘리가 탄생한 게 1983년이니 둘리 역시 33살 먹은 청년이 됐다. 자연스레 그때 그 시절로 시청자들을 찾았다. ‘모든 것’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